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5.19.(월)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766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동행’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주최,

더불어민주당-21개 소상공인 단체와 정책 협약

- 외식, 숙박, 미용, 제과, 유통,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생활 밀접 업종 참여
- 오세희 위원장 “정책 협약은 민주당의 약속, 소상공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낼 것”

2025년 5월 19일 (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산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는 5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06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중앙선대위 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소상공인 단체들이 제안한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공식 협약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외식·숙박·미용·제과·소매유통 등 다양한 생활 밀접 업종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여준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김성한 정책본부장, 박성준 정무2실장,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이자 대한숙박업중앙회 책임의원,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 홍기원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분부장 겸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책임의원, 백혜련 여성본부장이자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책임의원, 김교흥 국민안전 100% 사회위원장, 박지혜 홍보본부 부분부장이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책임의원이 참석해 정책 협약에 함께했다.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한 곳은 △대한미용사회(장선숙 부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정경재 회장)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금지선 회장)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정석록 회장) △한국펫산업연합회(이기재 회장)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이석원 회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조영순

회장) △한국화원협회(배정구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성미숙 회장)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사상철 회장)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임수택 회장)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이영채 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권형남 회장)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유완균 상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정원섭 회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김종목 회장) △한국계란산업협회(강종성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송유경 회장)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강성민 회장) △전국보일러설비협회(문쾌출 회장) △한국선물포장협회(박정희 회장)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윤여준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는 보호와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을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권리와 역할이 정당하게 보장받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산업을 이끄는 분들”이라며 “AI, 기후 위기 시대에도 우리 소상공인 산업이 자부심과 부가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당이 정책적으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정부2실장은 “오늘 협약식은 단체장들과 민생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소상공인의 삶이 바뀌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어지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숙박업과 외식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경험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생을 중심에 둔 정치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을 더욱 면밀히 챙기고,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금은 IMF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여성본부장은 “지금은 필요한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촘촘하고 세밀하게 제안된 협약 과제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민안전100% 사회위원장은 “그동안 고단했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꼼꼼히 챙기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홍보본부 부본부장은 “지역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회장님들과 단체 여러분”이라며, “현장의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상임위와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준비한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각 업종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는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앞으로도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 이행 과정을 점검해 제안된 과제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끝/.

붙임1. 정책협약식 사진

